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도자료	
	2024년 12월 19일	정진희 부대변인 010-9534-931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윤 여전히 내란 선동...즉각 체포 구속해야 민주노총, 사회 전반 근본 대개혁에 나설 것

양경수 위원장 “내란범죄 은폐 부정 시도 계속한다면 총파업 재계하겠다” “노조법 2,3조와 근로기준법 개정하고 5인 미만 사업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전력 다 하겠다” “시민 기본권 인정확대 위해 전력 다 할 것”

민주노총 19일 15층 교육장에서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민주노총은 19일 15층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은 가결됐지만 내란수괴는 여전히 내란을 선동한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반란행위를 저지른 위험한 자를 방치할 수 없으며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노동권의 보장과 확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2·3조 재개정을 포함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없는 적용,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실현에 힘을 집중”하고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확대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위원장은 “이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엄벌하는 시간”이며 “그 출발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과 국무위원이 윤석열의 정책을 이어가거나, 내란을 부정하고 감추기 위한 시도를 계속 한다면 중집 결정으로 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을 비롯한 노동의제 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대한 대개혁이 절실하다”면서 “민주노총이 계엄을 중단시키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투쟁,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 중단 없이 진행하겠다”면서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21일 13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반노동정책 폐기! 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1500개 노동시민사회 단체 연대조직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하는 15시 시민대행진에 참여할 예정이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발언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3. 발언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4.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5. 발언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6. 발언문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7. 발언문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8. 기자회견문

윤석열 탄핵과 한국사회대개혁을 위한 민주노총 기자회견

2024.12.19.(목) 10:00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기자회견 취지

- 내란범 윤석열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을 밝히고자 함
- 윤석열 즉각 체포·구속, 윤석열정권 반노동정책 폐기, 노조법 2·3조 재개정 촉구, 사회대개혁,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 제시

○ 개요

-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 순서

- 사회 : 전호일 대변인
- 발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국민과 최선을 다해 호흡하며 퇴진광장을 열어낸 민주노총 투쟁을 짚으며, 탄핵 이후 사회대개혁과 민주노총 투쟁 방향 제시함
- 발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금속노조 총파업과 투쟁 과정을 돌아보며, 노조법 2,3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쟁취 결의
- 발언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총파업을 비롯한 투쟁을 통한 탄핵 가결 성과, 이후 사회 공공성을 비롯한 사회대개혁 앞장 설 것
- 발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공무원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임을 선언한 탄핵투쟁,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투쟁 발언
- 발언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한 서비스노동자의 윤 탄핵투쟁 경과, 5인 미만 특고 플랫폼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과제
- 발언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보수의 심장 대구지역에서 국민과 함께 만든 투쟁 경과, 정권교체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다짐

[붙임] 발언문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윤석열에 의한 계엄, 그리고 내란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헌정 질서를 무력화하고 법과 제도라는 것을 뛰어 넘어서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윤석열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노동자, 시민들의 투철한 민주주의식으로 제압되고 극복되었습니다.

이제 윤석열과 내란 동조자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엄벌하는 시간입니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게서 반성의 기미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내란에 부역했던 국무위원들, 군인들, 경찰들 모두 스스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합니다. 2년 6개월간 윤석열에 의해서 망가진 한국 사회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다시 윤석열이 거부했던 법안들을 거부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점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집행되고 이행되어야 할 국민의 명령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란에 동조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계엄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과정이 어떠한지를 속속들이 밝혀야 합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탰던 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구속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찰과 경찰 공수처로 나뉘어져 있는 수사에 대한 권한을 특검을 통해서 일원화하고 체계적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대한 즉각 체포와 구속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내란의 계엄의 정돈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은 당연한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것이어야 합니다. 윤석열에 의해 망가졌던 노동 현장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타임오프와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을 혐오 집단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화물 노동자들에게 안전운임제를 빼앗았고 건설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23조 개정안을 두 차례나 거부해서 노조할 권리 손배 폭탄을 막지 않았던 윤석열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노동 개혁을 바로잡고 거부권 법안들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엄의 근거로 삼고자 했던 남북 분단 문제, 정치가 거대 양당으로 양분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한국 사회 발전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심각한 불평등, 양극화 차별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한국 사회를 어떻게 전환시키고 근본 문제에 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숙의와 공론장을 열어내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역할을 자임하고 앞장서겠습니다.

계엄을 중단시키고 내란 세력을 처벌하는 투쟁,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는 투쟁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주노총의 활동에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계엄과 이후 과정, 탄핵 과정에서 확인되었던 조직된 노동자들의 힘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힘을 시민들을 위해,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함께 사용하겠습니다. 힘찬 응원 부탁드립니다.

[붙임] 발언문 : 금속노조 이상섭 수석부위원장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그날 훨씬 이전부터 노동자들은 사실상 계엄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맞닥뜨려야 했던 거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노조 사무실을 철거하러 온 회사 청산인을 피해 고공으로 올라야 했던 구미 오펜칼하이테크 노동자, 노조 회계 장부를 공시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겠다는 협박, 법과 제도가 제시하는 이상의 근로시간면제자를 두는 노조는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위협... 계엄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2, 3조가 개정되지 않으면, 회계공시제가 없어지지 않으면, 강제적 창구단일화가 폐지되지 않으면, 방산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노조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산별교섭이 제도화 되지 않으면, 노조 무력화하는 타임오프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있어 계엄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금속노조는 보수-수구가 권력을 주거나 받거나 균점하는 썩어 문드러진 양당 정치체제, 불평등과 비정규직 확산하는 재벌독점 경제체제 해체하고 노동중심 민주주의 실현하는 데 앞장서 투쟁하겠습니다.

[붙임]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

위정자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맨 앞에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이 앞장섰고 우리 공공운수 노동자들이 총파업으로 함께 했습니다.

비상계엄 내란시도 바로 다음날 철도파업을 시작으로 교육공무직, 화물노동자들이 하루 일손을 놓았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간부파업이 결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의 힘으로 윤석열이 탄핵되었고 이제 빠른 구속과 파면을 통해 정상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상화는 윤석열식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데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 서민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부자와 재벌을 위한 부자감세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윤석열이 저지른 의료대란 속에는 공공의료에 대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깎으려는 연금개혁과 손쉬운 해고 등 노동개혁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합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교육,교통,돌봄 등 사회공공성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일하는 현장에서 죽지않고 다치지않고 일할수 있는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편안한 일상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기위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덕수를 포함한 부역자 척결을 위해 윤석열의 잘못된 정책 맨 앞에는 공공운수노동자가 앞장서겠습니다.

[불임] 발언문 : 공무원노조 이해준 위원장

윤석열 일당들의 내란 책동에 우리 국민들은 굴복하지않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국회를 포위하였고 그 힘으로 불법 계엄을 제압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조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부정비리에 대해 철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지난 6일에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님을 선포하는 시국대회 개최, 그리고 퇴진을 위한 연가투쟁까지 이어왔습니다.

공무원노조는 권력에 편에서서 권력을 보호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에 편에서 반국민적 권력을 심판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우리 공무원노조의 의무입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노조가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더 이상 기득권세력들의 세상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보호받고 행복하게 잘살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더 이상 불공정과 불평등이 통용되지 않는 새로운 사회, 그리고 교사, 공무원도 잘못하고 있는 정부와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비판 할 수 있는 정치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 모두의 힘으로 만들어 나아갑시다.

[불임] 발언문 :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

저희 서비스연맹은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목숨 걸고 국회 앞으로 한달음에 달려온 200여 조합원들과 힘차게 투쟁했으며 국민들과 함께 투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비스노동자 전 조합원은 SNS프로필 사진 바꾸기와 피켓 인증샷 찍기부터 시작했습니다. 마트 노동자들은 전국 점포 앞 피켓 시위, 1만 조합원 탄핵 촉구 뱃지 달기를 실천했습니다. 택배노동자들은 배송 트럭에 탄핵 구호를 달았고, 배달노동자들은 스티커를 오토바이에 부착했습니다. 학교 급식대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탄핵광장에서 어묵 5천개와 따뜻한 국물과 간식을 시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후의 세상은 달라야 한다는게 민심입니다.

기만적인 내용의 ‘노동약자 지원법’ 이 아니라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을 노동자라고 인정하는 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부터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으로 실질임금부터 정상궤도에 올려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노동자들을 경제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권리를 인정할 때, 나라 경제도 성장하고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붙임] 발언문 :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이길우 본부장

윤석열의 비상계엄 이후 대국의 광장을 가득 채운 것은 이른바 ‘TK의 딸’로 불리는 20,30 여성들과 청소년들, 장애인과 성소수자 등이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외쳐졌던 목소리들이 이번 내란 사태를 맞닥뜨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모여들었습니다.

비상계엄으로부터 열흘 간 광장에 함께 한 7만 8천 시민의 목소리는, 12월 14일 대구를 가득 채운 4만 5천 시민의 함성은 우리 사회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다짐과도 같습니다.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힘과 대구를 지역구로 하는 12명의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대구시민의 대변자가 아닙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대구는 윤석열로 말미암아, 다시금 민주주의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탄핵을 향한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탄핵 이후 새로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여성 청년 청소년 장애인 성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화물노동자가 건설노동자가 비정규직 노동자가 탄압받지 않는 사회, 일터에서 민주주의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정권 완전 퇴진을 실현하고 사회대개혁의 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노동운동을 불온시하고 노동조합을 적대한 정권입니다. 안전운임제를 요구한 화물연대의 투쟁을 북한 핵에 비유하고 안전한 일터를 요구한 건설노동자를 폭력배로 몰아 탄압했습니다. 윤석열정권 등장 이후 민주노총은 일관되게 반민주·반민생·반노동·반평화 정권퇴진을 위해 투쟁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선포는 민주노총의 판단과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국민의 저항과 국회의 결심으로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아직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수는 내심으로 계엄을 찬성하고 있으며 탄핵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당대표를 몰아냈습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자는 윤석열이 수없이 반복한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탄핵은 가결됐지만 내란수괴는 여전히 내란을 선동하고 있으며 내란의 공범들은 민의를 팽개치고 내란수괴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반란행위를 저지른 위험한 자를 방치할 수 없으며 즉각 체포하고 구속시켜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고 탄핵을 반대했으며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방해하는 국민의힘은 내란동조·내란범 비호세력입니다.

내란 세력의 준동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선 수백만 시민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 신속하게 탄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12월 14일 탄핵이 가결된 날, 국회 앞에서 광장의 시민과 의사당의 의원들은 탄핵의 끝이 정권교체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이라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대개혁의 과제가 노동권의 보장과 확대, 사회공공성의 강화를 통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중심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를 극복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윤석열정권이 구호로만 떠들었던 노동개혁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2·3조 재개정을 포함해, 특고·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없는 적용,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실현에 우선 힘을 집중하겠습니다. 교육·의료·돌봄·주택·교통 등 공공성 영역이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인정되고 확대하기 위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탄핵시위에서 응원봉으로 표현되는 10대·20대·30대 젊은이가 이번 탄핵광장에 대규모로 참가했으며 집회를 주도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청년이 사회의 주인이자 직장,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일상의 불평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평등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반동의 시대를 끝내고 시대착오적 인물들을 역사의 무대 뒤로 밀어내며 거리에 나선 모든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